

철의 역사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박물관은 이 지역에서 행해지던 일본 특유의 철 제조 방식인 ‘다타라 제철’의 역사와 기술, 다타라 제철로 생산한 철의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전통적인 제철은 ‘다타라’라고 불리는 용광로를 사용합니다. 다타라란, 목탄을 사용한 불에 사철을 녹여 강철로 만들기 위해 점토로 제작된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박물관에서는 제철의 원료와 도구, 모형, 다타라 제철로 만든 완제품 등을 통해 제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시 1 호관 안쪽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30 분 영상을 시청하며 제철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일본어 및 영어로 시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 자막을 제공합니다.

전시 1 호관: 다타라 제철과 기법

1 층에서는 스가야 다타라 산나이(제철소 주변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생산된 철로 만든 제품이나 즈쿠오로시(선철에서 탄소를 제거하여 강철에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사용된 철 소재(판자 모양의 철)를 전시합니다. 2 층에는 다타라 제철의 철 제조 기법과 제조 시에 사용된 도구, 생활에 관한 자료 등을 전시합니다. 또한, 운난시내의 45 곳에서 발굴된 게라(철강이나 선철) 표본도 전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제철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시 2 호관: 제철소 경영과 대장간 집단

전시 2 호관은 뒤뜰을 사이에 두고 작은 다리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질이 낮은 철이 어떤 방식으로 품질과 모양을 바꾸어 일본 각지로 출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다타라 제철의 경영자들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양질의 사철 채취가 가능했던 이곳은 14 세기 중반에는 철과 강철의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